

단맛 쓴맛 다 봤으니 진짜 승부 맛 볼 차례



‘루키’들의 험난한 프로 도전기 두 번째 막이 오른다. KIA 타이거즈의 2019시즌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중 하나는 ‘세대교체’다.

야수진의 고령화로 인해 시즌 전부터 세대교체가 중요한 속제로 언급되기는 했다. 하지만 야수 주축 선수들의 부진 속에 투수진의 부상이 겹치면서 예상보다는 빠르고 전폭적인 흐름으로 세대교체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갓 프로 무대에 뛰어든 신인들도 변화의 바람 속에서 기회를 보내고 있다.

KIA의 2019시즌 신인 중 1군 무대를 밟은 선수는 투수 김기훈, 양승철, 장지수 그리고 외야수 오선우 등 4명이다. 이들의 중간 성적은 ‘속제 많은 절반의 성공’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가장 눈길을 끌었던 이는 선발 한 자리를 차지했던 좌완 김기훈이다.

김기훈은 스프링캠프에서부터 선발 후보로 차근 차근 프로 데뷔를 준비했다. 김기훈은 캠프와 시범 경기를 통해 제구 약점을 노출했지만 첫 선발 등판이었던 3월 28일 한화전에서 5이닝 3피안타 1볼넷 6탈삼진 2실점의 호투를 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후 김기훈은 삼성, SK, 두산을 상대로 선발로 출격하면서 프로 경험을 쌓아갔다. 만족스러운 결과는 얻지 못했다.

두 차례 구원 등판 포함 7경기에서 26.1이닝을 소화한 김기훈은 6.84의 평균자책점과 2패, 그리고 제구와 자신감 찾기는 속제를 남기고 2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지난 1일 삼성전 선발 등판에서 김기훈은 3이닝 동안 강민호의 스리런 포함 9개의 안타와 3개의 볼넷으로 7실점(6자책점)하고 물러났다.

그동안 보여줬던 좋은 구위를 바탕으로 한 자신감 있는 피칭과는 거리가 멀었다. 팀 플레이에서도 잇달아 실수를 하면서 결국 김기훈은 퓨처스리그에서 재출전의 시간을 보내게 됐다.

김기태 감독은 2일 “그동안은 견제도 자신있게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던졌는데 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며 “잘 안 되다보니 두려움도 생겼을 것이다. 원래 한 차례 빼줄 생각은 하고 있었다. 많은 공부가 됐을 것이다. 본인도 느꼈을 것이다”며 김기훈의 반등을 기대했다.



양승철

데뷔 첫날 무실점·기분좋은 첫 선발전 6실점 패전...2군서 구슬땀

‘군필 늦깎이 신인’ 양승철은 가장 화려한 데뷔전을 치렀다.

양승철은 프로 첫 등판날이었던 4월 13일 SK전에서 2.1이닝 2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날 경기가 9회 2사 만루에서 터진 대타 한승택의 만루 홈런과 함께 KIA의 6-4 승리로 끝나면서 양승철은 데뷔전에서 승리까지 거머쥐었다.

하지만 양승철은 처음 선발 역할을 맡았던 4월 23일 LG전에서는 3이닝 3피안타(1피홈런) 6볼넷 2탈삼진 6실점으로 제 몫을 하지 못했다.

큰 키를 바탕으로 한 힘 있는 피칭으로 눈길을 끈 양승철은 2군에서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김기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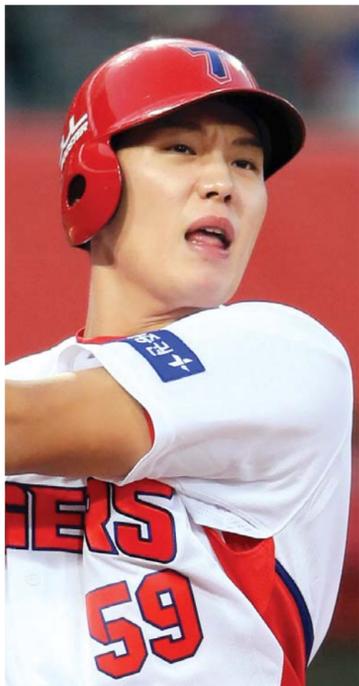
첫 선발전 5이닝 호투로 눈도장 7경기 2패...제구·자신감 찾기 숙제

이제 장지수와 오선우에게 사람들의 눈길이 쏠린다. 오선우는 지난 1일 전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했다.

육성선수의 정식 선수 등록이 가능했던 이날 오선우는 정식 배번을 받고 바로 1군에 등록됐다. 그리고 바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면서 꿈에 그리던 프로 데뷔전도 치렀다.

경기 전 오선우는 “후회 없이 경기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1회 2사 만루에서 데뷔 타석에 들어선 그는 삼성의 베테랑 윤성환에게 스탠딩 삼진을 당했다.



오선우

설레는 1군 등록 첫날 선발 출전 3연속 삼진...프로 높은벽 실감

이어진 두 번의 타석 모두 주자가 앞에 있었지만 오선우는 3연속 삼진으로 데뷔전을 마무리했다.

김기태 감독은 2일 “투지 있게 하라고 이야기해줬다. 어제를 교훈 삼고, 실망하지 않고 자신의 플레이를 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루키는 장지수다. 4월 20일 두산 원정에서 2이닝을 완벽하게 처리하면서 프로 데뷔전을 치른 그는 불펜의 위기 상황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하며 1일 삼성전까지 4경기에 모습을 드러냈다.

장지수는 4경기에서 7.1이닝을 소화하면서 27명의 타자를 상대로 4피안타 1볼넷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장지수

불펜 등판 4경기 7.1이닝 무실점 140km 중반대 빠른공 ‘자신감’

179cm의 신장으로 다른 투수들보다는 왜소한 편이지만 140km 중반을 넘는 빠른 공과 움직임이 좋은 슬라이더를 자신있게 던지면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장지수는 “(2군) 내려가지 말자는 생각으로, 안 내려가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며 “주어진 임무를 잘 해내다 보면 풀타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군에서 얼굴 많이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프로 쓴맛, 단맛을 일찍 본 ‘루키’들이 어떤 모습으로 남을 2019시즌을 보내게 될지 기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T 특독

수비 실수 김기훈 “아직 어리니까요”

▲아직 어리니까요 = 선배들을 들었다 놓은 막내 김기훈이었다. 고졸 신인 김기훈은 지난 1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진땀을 흘렸다. 1회에 만 30개의 공을 던지면서 볼넷과 홈런 포함 3개의 안타를 맞았다. 1회부터 경기가 어렵게 풀리면서 김기훈은 백업 플레이 등에서도 실수를 했다. 특히 1-3으로 뒤진 2회초 1사 1-3루에서 약속된 플레이를 하지 못해 실점을 했다. 주자의 도루 움직임에 따라 한승택이 송구를 했고, 작전상 김기훈이 중간에 잡아 3루 주자가 묶어야 했지만 커트를 하지 못했다. 결국 3루 주자가 홈에 들어왔고 기록 상으로는 한승택의 실책이 됐다. 한승택은 “아직 기훈이가 어리니까 넓게 보면서 경기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좋은 경험이 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나도 그랬는데 = KBO리그 레전드로 꼽히는 김기태 감독에게도 프로의 벽은 높았다. KIA는 지난 1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투수 김기훈, 외야수 오선우 두 신인 선수들의 아쉬운 플레이로 2-10 패를 기록했다. 자신 있게 승부를 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감독에게는 경험 부족의 어린 선수들이다. 김기태 감독은 “나도 신인 때 한 달 정도 성적이 안 좋아서 마음 고생 했었다. 나도 그랬는데”라며 어린 선수들이 실패를 받판 삼아 좋은 플레이를 하기를 기원했다. 어려웠던 신인 시절이었다고 하지만 김 감독의 첫 타석은 강렬했다. 김 감독은 데뷔 타석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안타를 치고 타점을 올렸”다고 답했다.

▲지금은 밤에 매일 치킨 먹어요 = 특별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성남고 선후배, 하준영과 장지수다. KIA는 올 시즌 투수들의 줄무상으로 신음하고 있다. 마운드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젊은 투수진의 성장이 위안이 되고 있다. 고졸 2년 차 하준영과 고졸 신인 장지수도 팬들을 웃게 하는 씩씩한 투수들이다. 두 사람은 성남고에서 나란히 프로야구 선수의 꿈을 키웠던 ‘동문사이’다. “후배 던지는 것을 보니 신기하다”는 하준영은 장지수에게 과묵한 선배였다. 장지수는 “(학교 다닐 때 준영이 형이) 너무 과묵해서 말을 못 걸었다”며 “고등학교 때와 지금이랑 성격은 다른데 포이랑 야구 스타일은 똑같아서 거리감이 없다”고 웃었다. 지금은 누구보다 가까운 선후배이자 이웃 사촌이기도 한 두 사람. 하준영은 “(지수가) 저의 옆집이예요. 밤에 매일 같이 치킨 먹어요”라고 웃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닝 이터’ 류현진

샌프란시스코전 8이닝 1실점 호투...팀 부진에 4승은 실패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눈부신 호투 속에 올 시즌 최다 이닝을 소화했으나 시즌 4승 달성에는 실패했다.

류현진은 2일 열린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방문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8이닝 동안 사사구 없이 삼진 6개를 잡아내며 안타 4개로 1점만을 내줬다.

류현진은 1-1로 맞선 9회 말 좌완 불펜 홀리오 우리아스와 교체돼 승패 없이 물러나며 평균자책점을 2.96에서 2.55로 낮춘 것에 만족했다. 팀은 1-2로 졌다.

하지만 류현진은 올 시즌 최고의 호투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류현진은 올 시즌 처음으로 8회까지 던졌다. 이전까지는 7이닝 투구만 2차례 있었다.

2013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이래로는 개인 통산 3번째다.

류현진은 2013년 5월 29일 로스앤젤레스 에인

절스전에서 9이닝 완봉승을 거뒀고, 2013년 9월 17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8이닝 완투패를 기록했다.

부상 복귀 후 두 번째 등판에서 류현진은 올 시즌 최다 이닝에 이어 한 경기 최다 투구 수인 107개를 던지며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

메이저리그 최고의 좌완 투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샌프란시스코의 에이스 매디슨 범가너를 넘어선 호투였기에 더욱 빛을 받았다.

범가너는 6이닝 동안 4피안타 2볼넷 8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지만, 더 길고, 더 완벽하게 던진 쪽은 류현진이었다.

류현진은 다저스의 올 시즌 33번째 경기에서 8이닝을 추가해 도합 35.1이닝으로 규정이닝 요건을 단숨에 넘어서고 본격적으로 다승왕과 평균자책점 대결을 펼치게 됐다.

/연합뉴스

여자탁구, 무한경쟁 선언

세계선수권 부진 충격...중국오픈 포기하고 훈련 집중

“4번 시드를 받고 8강에서 탈락하는 것보다는 8번 시드를 받더라도 자기 실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고강도 훈련과 무한경쟁으로 선수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한국 여자탁구 대표팀의 사령탑인 유남규 감독은 2019 국제탁구연맹(ITTF) 세계선수권대회(개인전)에 선수들을 데리고 참가했다가 성적 부진에 큰 충격을 받고 대표팀 전력 강화를 위한 쇄신책을 마련했다.

강도 높은 훈련과 새로운 정신무장 없이는 세계 최강 중국과 상성을 탄 일본의 벽을 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달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에서 남자팀의 막내 안재현(삼성생명)이 ‘테이블 반란’을 일으키고 깜짝 동메달을 수확했지만, 여자팀은 심각한 부진을 겪었다.

여자대표팀은 서효원(한국마사회)과 전지희(포스코에너지), 최효주, 이시은(이상 삼성생명), 유

은총(미래에셋대우) 등 5명이 출전했지만, 단식예선 서효원이 16강에 오른 게 최고 성적이었다.

지난 2월 28일 공개모집을 거쳐 여자대표팀 지휘봉을 처음 잡은 유남규 감독으로서 참담한 성적 표였다.

유남규 감독은 “메달을 따지 못한 것 못지않게 우리 선수들의 실망스러운 경기 내용에 더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런 상태로는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홍콩, 대만, 싱가포르, 북한, 독일, 루마니아와 동메달 경쟁도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유 감독은 선수들의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훈련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매년 참가했던 중국오픈(5월 30일~6월 2일) 출전을 포기하는 한편 중별선수권대회(5월 8일~15일·충북 제천) 출전을 앞둔 상비군 선수들을 전선선수촌에 재입촌하도록 했다.

유 감독은 “중국오픈 참가와 출전 준비로 열흘여

보내는 시간에 집중 훈련을 통해 내실 있게 하려고 한다. 일단 실력을 키우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다”면서 “패배의식을 버리고 목표를 설정해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별선수권 준비를 위해 지난달 30일 귀국 직후 소속팀으로 돌아간 남자팀과 달리 여자팀 선수들은 1일 밤 재소집됐다.

세계선수권에 출전한 5명을 포함한 상비군 14명은 8일까지 전선선수촌에서 훈련하고, 중별선수권이 끝난 직후인 15일 선수촌으로 재입촌해 고강도 담금질을 이어갔다.

세계랭킹이 157위였던 남자팀 막내 안재현이 세계 4위였던 일본의 간판 하리모토 도모키즈를 꺾는 이변을 일으키고 동메달을 딴 ‘안재현 돌풍’에 자극받아 여자팀은 선수들의 무한경쟁을 선언했다.

유 감독은 “도쿄올림픽이 1년 3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기존 대표팀 선수 외에 신유민 등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줘 경쟁을 통한 전력 상승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한다”면서 “그래야만 여자팀에서도 안재현 같은 선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올 연말까지 집중 훈련을 하고 내년 부산 세계선수권(단체전)에서 테스트한 뒤 내년 도쿄올림픽에선 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